

바다가 내어준 작은 풍경... 추억이 머무는 마을

계절마다 다른 신선한 수산물
새우·꽃게·민어·병어·참승어...
수산물 판매센터서 관광객 맞이

숙성부터 가공·판매까지
설도젓갈타운 어민 소득 기여

안강제 주변 산책로·전망대 조성
인공섬 계획...해양레저형 마을로

영광군 염산면에 위치한 조그마한 어촌인 설도마을은 설도항을 중심으로 수산물을 잡아 팔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 주민 대부분은 어선으로 함평과 무안, 영광의 바다가 하나로 이루어진 함평만과 영광 서쪽의 칠산바다까지 나가 고기와 새우를 잡는다. 봄부터 가을까지 잡아들인 새우는 인근 염산 염전의 소금을 이용해 젓갈을 담근다. 밀도가 굵고 염도가 낮은 영광 천일염은 최고의 젓갈을 만들어낸다. 설도항 뒷편에 자리한 젓갈타운에서 사시사철 싱싱한 젓갈을 만날 수 있다.



▲하늘에서 본 설도항과 마을 전경. 영광 칠산바다와 함평 등지에서 나오는 다양한 수산물을 싱싱한 원물, 건어물, 젓갈 등 다양하게 만나 볼 수 있지만, 편의 및 기반시설이 미흡하다는 점이 다소 아쉽다.



◀설도마을 내 안강제 주변에 설치된 데크. 주민들은 안강제에 노을전망대, 체육공원, 수상골프연습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노력 중이다.



“천혜의 자연경관 활용 관광객 유치 주민들 화합으로 명품마을 만들 것”

영광 김광욱 월봉어촌계장

“마을 사람이 화합하면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누구나 살기 편하는 곳으로 만들어야죠.”

영광군 염산면 설도마을의 월봉어촌계장 김광욱(63)씨. 그는 어선어업과 맨손어업을 하는 150여명의 어촌계원들을 대표해 어촌계의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 ‘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하며 지난해 7월 계장직을 맡았다. 광주에서 건축업을 하다 지난 1996년 친구의 권유로 설도마을에 터를 이룬 귀어인이다.

김계장은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바다에 나가면 제법 큰 돈을 만들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획량도 줄고 있다”며 “이는 어느 어촌이나 마찬가지”고 토로했다.

무안과 함평, 영광으로 연결되는 바다를 칭하는 함평만은 인근 칠산바다와 함께 어족자원이 풍부한 바다로 알려져 있다. 1910년대 근대적인 항구 성격을 갖게 돼 100년 이상 이어져 온 설도항이지만,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고갈은 피할 수 없었다.

그는 “바다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는 마을의 경관을 잘 활용해 보다 편하고 윤택한 생활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단체모임이 줄고 가족 단위 등의 소규모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 시점에서 개개인이 각자 즐길 수 있는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주민 스스로의 노력도 강조했다.

김계장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설도항 주변의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며 마을을 쾌적하게 가꾸도록 노력하겠다”며 “즐거워야 설도항 미래도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광주일보 기자 jeans@kwangju.co.kr



들을 위한 휴양공간을 만들 생각이다. 안강제 주변의 갈대밭을 적극 활용해 생태 환경과 조화를 이룬 산책로와 낚시터, 노을전망대, 체육공원 등을 조성하고, 안강 수면 위에 수상골프연습장이나 생태 체험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인공섬’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설도를 찾는 이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관광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오토 캠핑장을 조성해 수산물센터·젓갈타운과 연계해 수산물들과 젓갈류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등 홍보 마케팅에 나서서 한편 설도에서 나는 수산물들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체험 전시관을 지어 자라나는 아이들의 학습장소로 활용할 방침이다. 영광의 질 좋은 갯벌을 이용해 체험길과 해안선을 따라 걸닐 수 있는 데크로 꾸민 산책로 조성, 염산의 염전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또 현재 포구 앞에 무질서한 주차장 환경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이를 확장해 외지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목적 커뮤니티센터와 공동작업장을 만들고 기존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등도 현안에 포함돼 있다.

주민 최중천(65)씨는 “영광만이 아니라 전라도를 대표할 만한 관광지로 손색이 없어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며 “외지인들이 더 자주 찾고, 주민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마을로 거듭나기 위해 지자체의 지원과 주민들의 단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진수 광주일보 기자 jeans@kwangju.co.kr

▲영광 설도 수산물판매센터에서는 사시사철 나오는 싱싱한 수산물을 즉석에서 맛볼 수 있어 외지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어선의 이름을 딴 선호의 점포는 선장의 부인들이 대부분 운영하고 있다.

